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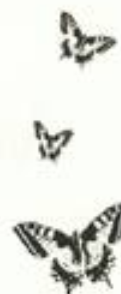


2007년 가을,
퍼서잉주의 네트워크 앨리스 ♠





♣ 자, 이제 문을 열고
앨리스를 따라가 볼까요?



사람들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는 능력.

자기 내부에 어떤 가능성을 갖는 것.

이것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이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혼자만의 힘으로 자기 발전소를 가동시킬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발전소를 가동시킬 수 있는 에너지의 장에 가까이 가는 것.

자신의 저항에 호응하고 지지하는 궤도니미가 너무나 절실하다.

- 김은실 (현 이화여대 여성학과 부교수)



여성주의 네트워크 앨리스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강요되는
수많은 조건에 스스로를 가둬야 하는 **이상한 나라**에서
우리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꿈꾸고,
내가 발 딛고 있는 곳에서부터
함께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방학마다 사람들을 모아 여성주의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올해에는 3.8 여성의 날 기획단을 꾸려 몇몇 행사를 준비했으며
여름방학엔 이랜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을 만나고
2007 대안세계화 학생포럼 '여성노동권' 부분에 참여하는 등
시기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부와 실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앨리스와 함께할 앨리스를 찾습니다 ^^

<http://alice-ym.cyworld.com>



목 차

- ◇ 소책자를 내며 4
- ♣ 여성주의와의 첫 만남 5
- ♣ 연애, 그 정해진 역할놀이에 욕구불만인 당신에게 7
- ♣ 내가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을까? 9
- ♣ 그러니 당신의 삶을 살아라 14
- ♣ 엄마의 인생을 지지합니다! 16
- ♥ 그녀는 다이어트 중 19
- ♥ 내가 없는 우리 공동체 21
- ♥ 감정노동, 학교, 그리고 여성 23
- ◆ 일하는 그녀들의 이름, 비정규직 26
- ◆ 어긋나지 않기 위하여 30
- ◆ <천하장사 마돈나>에 대한 짧은 감상 32
- ☆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33



✻ 소책자를 내며

올 봄, 총학생회가 '총여학생회 폐지'문을 들고 나오자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 제안에 솔깃해했다는 사실은, 연세대학교 내에서 여성주의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신입생 수련회 때 마지못해 벽에 붙여놓는 반성록의 자치규약, 그 이상의 '무언가'가 되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우리는 '여성주의'가 단순히 금지나 처벌, 혹은 여/남의 대립의 논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성주의란 그 무엇보다도 공동체 안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지하고 배려해주는 것이며, 나와 너의 차이를 가로지르는 '소통'의 논리라고 생각하고, 이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멀리 떨어져있는 이론적인 이야기 말고, 가까운 동기나 선·후배의 목소리로 우리의 일상 속 불편함을, 혹은 여성주의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여기에 (완벽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몇 개의 글을 모았습니다.

여성주의에 대해 갖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걷어내고, "그래서 어떡 하라고? 대안이 뭔데?"라고 조금하게 다그치지 않으면서, 친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듯 가만히 이 이야기들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들을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나갈 수 있게 된다면, 아마 우리가 이 조그마한 책자에 기대할 수 있는 최대의 성과를 거둔 것이겠지요. ^^

2009년 가을에

여성주의 네트워크 앨리스 ◆

✻ 여성주의와의 첫 만남

- 2009 여름방학 여성주의 세미나를 함께하고 -

by 멜로어



한 살, 두 살 나이가 들수록, 여성이라는 이유로 구속 받는 것들이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 사회가 나를 구속하는 부분도 있고, 사회로부터 교육받은 나 자신이 스스로를 구속하는 부분도 있지. 사소하게는 내 발을 구속하는 하이힐에서부터 피해갈 수 없는 다이어트까지. 그리고 밖에 나갈 때면 화장을 해야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밤늦게 집에 돌아올 때면 한껏 긴장을 곤두세우고 걸어야 하는 어두운 골목길. 여러 모임에서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입장들도 있어. 그리고 이제 곧 추석도 다가오는데,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이 나겐 그다지 즐겁지 않은 않아. 명절날 친척집에 가면 부산하게 움직이며 음식 장만을 하시는 엄마, 큰엄마와, 거실에서 TV보고 과일 먹으며 이야기 나누는 여러 남성들. 그리고 그 가운데 앉아있는 나는, 이제 다 컸으니 여성들의 세계에 편입되어 주방에서 실거지라도 거 들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마음에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함을 어찌할 수가 없지. 남자 사촌들은 이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주는 음식 받아먹으며 놀기 바쁘고 말이야.

이러한 답답함과 고민들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여성주의를 공부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처음 여성주의를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여성주의는 이러한 것이었어. 지금 이 사회는 남성에게 비해 여성이 여러 면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고, 여성주의는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것은 여성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 중의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느 한 편을 피해자로 상정해두는 것. 그러한 이분법에 갇혀서는 여성주의적으로 변화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실제로, 모든 여성들이 여성주의를 지지하는 것도 아닐텐데, 남성과 여성을 직대시 하는 것은 여성주의에서 지향하는 바가 결코 아니거든. 언론에서 군 가산점이나 안과결 등에 대해 보도할 때, 오히려 여성과 남성의 대립구도를 부추기고 여성주의에 역행하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을 보면 참 씁쓸해지곤 하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 물론 당연한 말이라

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여성주의를 공부하다보니 내가 이러한 편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나의 삶과 나의 행동, 나의 생각이 나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닌, 사회로부터 결정지어지는 측면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여성주의는 여성을 위한 것도, 남성을 위한 것도 아닌, 인간을 위한 것이야. 모든 사람들이 제도와 관습과 편견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이야기 하는 것이 바로 여성주의지.

여성주의는 결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한 가지 주장을 내세우지 않아. 백 명의 여성주의자가 있으면 백 개의 여성주의가 있다는 말도 있듯이 말이야. 다만, 모든 여성주의는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지향하고, 자신 안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선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자그마한 우리의 이야기와 실천들이 모여 세상은 조금씩 아름답게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 말이야~



나는 그들이 공포감이나 환상에 뿌리를 두지 않고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해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랐다. 그들이 다음과 같은 간단한 명제를 읽고 또 읽어서 그들 스스로 터득하게 되기를 바랐다. **"페미니즘은 성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을 종식시켜주는 운동이다."** (· · 중략)

더 가까이 오라. 페미니즘이 당신의 삶과 우리 모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지켜보라. 더 가까이 오라. 와서 페미니즘 운동이 진정으로 어떤 것인지 직접 살펴보라. 더 가까이 오라. 그러면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페미니즘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임을.

- 벨 훅스, <행복한 페미니즘(Feminism is for everybody)> 서문 중에서

✎ 연애, 그 정해진 역할놀이에 욕구불만인 당신에게

- 낭만적인 연애 속의 여성 -

by GoldPen



여성주의라는 말, 처음에 엄청 낯설었어. 왜냐면 난 내가 '여성' 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본 적이 별로 없거든; 그런데 다들 그렇지 않아? 어렸을 때의 어린애고 학생 때는 학생이었잖아. 지금도 나한테 '여성' 이라고 하면 낯간지러운 게.. 참,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여성주의, 하면 여자들이 똥쳐서 남자들이랑 평등해져야 된다고 외치는 거 아닌가? 정도의 배우 얌은 지식을 갖고 있었지, 보통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데 대학에 오니까 연애를 하게 되더라고. 뭐 다들 그런 게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지만..ㅋㅋ 아무튼 연애를 하게 되면 내가 여자다, 라는 생각이 확 든단 말이야. 왜냐면 난 남자랑 연애를 하니까, 연애에서만남 남자 여자 역할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장도 드물거든. 사실 내가 하는 연애는 다른 예들의 연애에 비하면 비교적 성역할이 고정되어있지 않은 연애였지만... (고백을 하거나 집에 데려다주거나 이런 부분에서..ㅋㅋ)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다보니 온근히 티비의 남성상을 기대하게 되는거지. 여기서 티비의 남성상이라는 건, 박신양같이 터프하게 여자애들을 잡고 "제말을 못해!! 내남자라고!!" (<-착악/ㅏ/!!) 악쓰거나 월드스타 비처럼 뽀빠 찰찰하면서도 돈 잘 쓰고 알고 보면 아가같은 (예형-///-) 남자라든

지... 아무튼 티비에 나오는 연애하는 남자들은 주권 뚜렷하고 멋지고 그런 예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다들 인정하지? 뭐 이런 걸 기대하는 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지.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러면서 티비의 여성상이 내 안으로 스며들며 들어온다는 거야. 예쁘고 똑똑했던 여자들이 사랑하는 남자 앞에서는 뽀빠 약해지고 의지하

고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게 제대로 된 연애이자 사랑인 것처럼 되는 거 말아야.

문을 그걸 깨달았을 때, 내 기분은... 그야말로 "헐..."이었어. 근데 주변을 둘러보니 대학에 와서 연애를 시작한 다른 애들도 그렇게 변해가더라고... 내가 여자다. 가 확실해지면서 브루하게 "나도 이렇게 여자가 되는건가 /ㄴ/" 이라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여성주의가 남 일이 아니게 되었을까... 어련해나 학생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내 정체성을 깨달았을 때, 난 여성이 뭔지, 어떤 여성이 되어야 하는지, 왜 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주체적인 인간상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상적인 여성상과 자주 충돌하는지 그리고 남자는 왜 안 그런 건지를 알아야만 했지. 꽤 우 다급하게.

그래서 흥미 있게 배운 여성주의는 내가 궁금해 하던 많은 것에 대한 답을 줬어. (아, 위에서 내가 알고자 했던 '연애'와 이상적인 여성상에 대한 고민의 결론은 여기 적지 않음게, 그걸 적기엔 자리가 모자라니까, 궁금한 사람들은 직접 여성주의를 배워보기를...) 여성주의가 사실 여성만 이야기하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지. 여성은 숫자상으로는 소수가 아니지, 세상의 반이 여자니까. 그런데도 사회적으로는 소수야. 여성주의는 이렇게 숫자가 아니라 사회적 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함께하자는 생각이야. 그래서 여성주의는 종종 비정규직, 동성애, 장애인 운동에서도 거론되곤 해. 여성주의가 핵심의 개념,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직접 부딪치고 느끼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어서 그만큼 오해가 많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

☞ 내가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을까?

- 남성이 2인화는 어딘가 -

by 이주미



작년 겨울, 마냥 사랑스러워 보이던 새내기들과 함께 신수를 가기 전이었다. 그 아 이들과 신수를 가기 전에 반 사람들을 모두 강의실에 모아 놓고 나는 '여성폭력 자 치 규약'을 읽었다. 나 혼자 공공대며 약 10분가량 모든 내용을 다 읽고 나서 반응을 기다렸으나 결국 별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강의실을 나와야 했다. 내가 그 긴 글을 읽은 이유는 신수는 2박 3일 일정에 밤샘 술자리까지 이어지는 상황이고, 새내기 여 학우들이 그 상황을 힘들어할 게 걱정되었기에 조금이나마 그녀들을 안심 시켜주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강의실을 나와서 허무해하며 버스로 이동하던 중에 한 새내기 여학우가 나한테 와서 정말 불안했는데 고맙다며 인사를 했다(!) 그 때 그 새내기의 안심하던 표정과 고맙다던 말은 내가 처음으로 여성주의를 '좋은' 것이라고 생각 하게 된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

작년 여름, 거의 농활기간이 끝나가던 무렵이었다. 그동안 우리 농활대는 숙소 앞 에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샤워를 했는데, 이제 떠나기 전에 그 텐트를 접어서 창고 에 넣어야 했다. 텐트를 철거했던 경험 상 이제 나에게서는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기에 남학우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숙소에 들어가서 "텐트 철거하니 까 남학우들 나오세요."라고 말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비판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다른 자리에서 나는 그 말에 대한 비판을 들었다. 분명 남/녀의 체력 차이에 따른 일의 분배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몸을 쓰는 노동 이 중심이 되는 농활이라는 상황 속에서, 힘든 일을 모두 남학우들 이 해야 한다는 것은 체력이 상대 적으로 약한 남학우나 대부분의 여 학우들에게 좋지 않은 것이라는 비 판이었다. 솔직히 그 때 나는 그



비판이 참 불편했다. 그 때 내가 하게 된 생각은 내가 한 말은 경솔했고, 그럼 앞으로는 "OO일 할 사람을 나오세요."라고 말해야겠다는 생각정도였다.

금년 1월, 몇몇 사람들과 함께 여성주의 세미나를 했다. 광범위하게 정의해서 이전에 여성주의를 접했던 두 경험은 나에게 단순히 '여학우들에게 좋은 것', '불편한 것'이었고, 그와 다르게 이 세미나는 바로 '나'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것은 곧 '여성주의와 (남성인)나' 혹은 여성주의 안에서 (남성인)나를 그 기간 동안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세미나를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구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안다는 것은 상처받는 일이어야 한다.'였고, 다른 하나는 '여성주의는 반남성이 아니라 양성차별이다.'라는 문구였다.

세미나를 하면서 행복했다. 행복했다는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다. 여성주의는 여자들의 것이라는 오해를 깨고 여성주의에 남성인 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여성주의가 남성인 내가 당하는 성차별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정말로 나는 기뻐했다. 내가 그동안 남성이기에 당했던 성차별을 말해주면서, 그게 나 '개인'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여성주의는 그동안 성차별로 상처 받아왔던 내 마음을 치유해주었다. 그래서 그 겨울 내내 따뜻한 중도에서 여성주의 서적을 읽으며 나는 참 훈훈해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더 여성주의를 나의 삶에 접합할수록, 지난 농활 때 경험했던 '불편함'이 내게 점점 크게 다가왔다. 남성인 나도 성차별을 당해서 상처를 받아왔고, 그 상처를 여성주의를 통해서 치유를 받았지만, 동시에 남성인 내가 행했던 수많은 성차별적 언행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내가 남자들이끼리만 있었을 때 했던 성적인 농담들,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술자리와 축구/농구 등 대체로 남성들에게 더 편한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권력을 만들어냈던 기억들,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 표출 등등.

정말 수도 없이 많았던 그러한 성차별적 언행과 생각을 했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내가 떠올랐다. 불편했다. 아니, 가슴에 어떤 무거운 것이 계속 내려앉아 있는 것 같았다. 아, 그게야 정치권력의 책에서 '안다는 것은 상처받는 일이어야 한다.'라는 문구가 나온 백락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사회 속에서 남자로 인정받는 남자들이끼리만 있는 술자리가 힘들어졌고, 동시에 모순적으로 페미니즘을 고민하는 여자들이끼리만 있는 자리에서 나는 곧 잘 죄책감으로 침묵하게 되었다.

올 여름, 다시 세미나를 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단순히 여성주의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 사회 전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 가부장제와 지금의 신자유주의라는 시대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물론 가부장제와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여성을 억압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참 좋았지만, 사실 이번 세미나에서 여성주의에 침묵하게 된 나의 고민을 해결할 수는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남성으로서 여성주의를 접하면서 나 스스로 설명하지 못하는 '공백'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

나는 여성주의가 힘들다. 아니, 자라리 혼란스럽다. 여성주의를 고민하는 나의 마음에는 여전히 가슴에 무거운 어떤 것이 내려앉아있다. 남성인 나에게 해방감을 안겨줬던 여성주의는 동시에 내가 남성이기에 무거운 짐을 얹어준 것이다. 사람들은 여성이 여성주의로 주체화되는 과정과 남성이 여성주의로 주체화되는 과정이 다르다고 한다. 여성에게는 상처를 치유해주면서 새로이 삶을 재구성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하는 한편, 그동안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으로서 살아왔던 남성인 나에게서는 참으로 많이 아프게 하는 측면이 큰 것 같다.

금년 가을, 요새 들어서 나는 여성주의에 대해서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어떤 친구는 바람직한 전통 과정을 겪고 있다고도 하지만, 솔직히 나는 내가 정말 여성주의로 주체화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회의감마저 드는 요즘이다. 그러한 혼란스러움이 들게 된 하나의 고민을 짧게 말하자면 여성주의자들인 여성들이 '남성 = 적'으로 상징화시키는 사건들을 접하면서부터이다. 혹은 노골적이게 '남자 = 적'이라고는 하지 않더라도 어떤 이유들로 남성과 여성이 함께 페미니즘을 고민하지 못하게 되고 '이탈하게 되는' 혹은 '침묵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일련의 모습들을 목격하면서 부터이다.

성차별적 사회에서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많이 성차별적 폭력에 노출되어왔기에

페미니즘을 고민하는 그녀들의 일련의 행동들이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운동은 폭력에 대항하는 대항폭력(예를 들어 총학의 총무표에 대항해 걸었던 "여학생 조직의 필요도 모르는 것을 너희가 성폭력을 알 리 만무하다. 이 부시 같은 놈들")이라기보다는, 反폭력의 운동으로서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경계를 구분 짓기 힘들어서 더욱 더 혼란스럽다. 동시에 여성들이 당해왔던 성차별적 폭력에 대해 내가 다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 편한'소리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든다.

분명 남성들의 성차별적 성폭력적 상황들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비판은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비판은 나에게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가끔 나는 여성이면서 여성주의자들의 대항폭력(이 말은 참 어렵다. 폭력 말고 다른 언어가 없을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시에 그것을 단순하게 그녀들의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 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을까? 아니, 나는 페미니즘을 계속 고민하면서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 수 있을까. 남성이 남성에게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페미니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대체 어떠한 의미인걸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페미니즘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걸까. 왜 페미니즘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머리가 복잡해질까. 이외에도 정말 수많은 고민들이 머리에 넘쳐나면서 이만 글을 마치려한다. 나처럼 남성이 페미니즘을 받아들이면서 어려운 점과 그 공백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다.

(덧글. 이 글쓰기를 빌어서나마 나의 성차별적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라는 폭력으로 상처를 받았을 그/녀들에게 미안하다 말하고 싶다.)



나는 안다는 것은 상해받는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다는 것, 더구나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삭제된 역사를 알게 되는 것은, 무지로 인해 보호받아 온 자신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 사회에 대한 분노, 소통의 절망 때문에 상해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 . .중략.)

때문에 여성주의는 사람들을 '행복' 하게 하지 않는다. 더욱이 편안할 수는 없다. 다른(alternative) 편지를 착용했을 때 눈의 이물감을 어쩔 수 없다. '상식'에 도전하는 모든 새로운 언어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지지해준다. 여성주의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의문을 갖게 하고, 스스로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 힘을 준다. 대안적 행복, 즐거움 같은 것이다. 머리 좋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즐기는 사람은 고민하는 자를 능가하지 못하는 법이다. 여성주의는 우리를 고민하게 한다.

- 정희진, <페미니즘의 도전> 서문 중에서

❏ 그러니 당신의 삶을 살아라

- 결혼과 가족 반동기 -

by 송미애



결혼은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다. 내 주위 사람들은 모두 결혼을 해서 불행해 보였고 그 사람들이 내게 보여주는 모습이나 들려주는 낱 선 목소리가 지겨웠고 불안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주위에 하면 사람들은 그러려면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남(성)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면 나는 독립적이고 멋진 여성이 되어 혼자 살며 나의 인생을 즐기는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고는 즐거워하곤 했다.

하지만 내가 상상하였던 그런 멋진 여성의 삶은 극히 일부의 여성들에게만 허용된다는 것을 나는 오랜 후에나 알게 되었다. 대다수의 여성들은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취업조건 속에서 충분한 여가 생활을 꿈꾸기는커녕 취직을 위해서라면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저임금 노동을 감수하고 있었고, 팔처럼 달콤한 줄만 알았던 결혼생활이 '보이지 않는' 그녀의 노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득해야 했다. 그리고 이런 여성들이 존재하는 곳에서 나는 아무리 혼자 행복해지려 발버둥쳐도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요즘 나는 내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나는, 혼자서 살아가기엔 너무나 나약하고 외로움을 많이 탄다. 여전히 나의 독립된 시간과 공간을 보장받고 싶지만 누군가와 함께 일상을 나누는 삶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누군가의 일방적인 노동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속에 살아가긴 싫다. 내가 그 일방적인 노동을 수행하기도 싫고, 남이 해주는 것도 싫다. 물론 우리의 엄마들처럼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식사 차리고 아이들보고 등의 노동을 전담하는 사람이 집에 있다면 매우 편할 것이다! -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엄마들이 집에서 놀고 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 알아차릴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여성들의 은폐되고 평가 절하되는 노동들이 결국 그녀들이 가정 밖에 나가

서 노동을 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을 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여성의 노동이 정당한 가치를 평가받고 스스로 그 일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싶다. 나의 노동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노동을 보다 세심하게 바라볼 수 있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리고 나 뿐 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단 나만의 선택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세상에서 행복하고 싶다. 결혼을 해도, 결혼을 하지 않아도, 혼자 살아도, 같이 살아도. 열심히 일하면서도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아이를 낳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집안일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 하는 그런 세상. 울까? 언제쯤?

확실한 건 그런 세상이 제 스스로 오지는 않는 다는 사실!?

... 중요한 뱀발 :

"당신들은 젊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 모두가 행복해질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당신의 삶을 살아라. 행복을 놓치지 말아라. 비록 자본주의 하에서 결혼이 슬픔의 사슬이었을지라도 결혼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이를 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회는 더 많은 노동자를 필요로 하며 모든 아이의 출생을 기뻐한다. 당신은 아이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신의 아이는 끊임도 추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알렉산드라 콜론타이가 1918년에 쓴 '공산주의와 가족'이라는 글의 한 부분이다. 전쟁과 혁명의 혼란기 속에서 콜론타이는 앞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공동체는 가족의 변형 없이는 성립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다. 요 부분은 글을 읽으며 엄청난 감동을 받고 밑줄 짚아 그어놓은, 새로운 사회에서의 가족에 대한 밑그림. 요즘 엄마와 나의 관계, 엄마의 나에 대한 걱정을 떠올리며 결국 서로가 서로의 삶을 살고 서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토대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절실히 느낀다.

"그러니 당신의 삶을 살아라. 행복을 놓치지 말아라."

☞ 엄마의 인생을 지지합니다!

- 우리 엄마께 함께 먹기 -

by 류미



얼마 전 읽은 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의 여주인공은, 자신의 엄마가 아빠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다. 무심하고 게으른데다 식탁 앞에서 불평만 늘어놓기 일쑤인 아빠와, 성인이 된 후엔 엄마의 관심을 간섭으로만 느끼며 귀찮아했던 자식들을 생각하면 엄마의 '다른 남자'가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녀는 큰 혼란에 빠진다. 한동안 혼자서 몽상하며 고민하고 있는데 급기야 엄마는 가출을 하고! 겨우겨우 엄마를 찾아내서 집에 돌아가자고 설득하던 주인공은 문득 생각한다.

'나는 엄마의 팔을 잡아끌었다. 가족이 누군가의 회생을 동면 삼아 이루어지는 관계라면,

회생자는 언제나 엄마의 역할이었다. 그렇다면 엄마를 그 안에 품고 엄마는 것이 나의 역할인가.'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 ...나에게 엄마는, 엄마에게 나는 어떤 존재일까?

언제였나. 아마 중학교 1학년 때쯤? 엄마와 엄마의 친구들이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라는 소설이 참 좋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열에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 하던 내겐 '좀 더 크면 읽어라~'는 말을 덧붙이며, 물론, 그래서 더욱 궁금해져버린 나는 며칠 뒤 그 책을 찾아내 읽어버렸지만 말이다ㅋㅋ 역시 좀 더 큰 뒤에 읽었어야 했는지, 나를 읽으며 충격도 받았다. 그렇지만 난 그 소설이 '불륜'을 다뤄서 충격 받았던 게 결코 아니었다. 엄마가, 우리 엄마가 그 책을 좋아한다는 사실! 이 진짜 충격이었다. 세상에!

이건 고등학교 때의 일이다. 어릴 적 사진을 찾아 찬장을 뒤지다가, 오래된 편지들을 모아놓은 상자를 발견했다. 엄마가 결혼하기 이전에 가족·친구·연인에게 받았던 모든 편지들이었다. 두근거리며 한 통을 골라 읽어 내렸는데, 고등학생인 엄마의 꿈과.. 고민과... (물론 엄마가 '받은' 편지이므로 그 내용에 대한 친구의 대답이 쓰여 있었지.) 그런 이야기들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내겐 매우 인상 깊게 남아있는 순간들이다. 끊임없이 가족들을 신경 쓰고, 위하고, 사랑하고. 엄마는 그런 데에서만 행복을 찾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믿어 왔는데, 엄마도 처음부터 엄마였던 건 아니구나. 엄마에게도 꿈과, 욕망과, 상처.. 그리고 '인생'이 있구나. 참 이거야말로 '당연한' 사실인데, 난 그걸 깨달으면서 조금씩 성장한 것 같다.

그러나 어쩌면 그런 사실을 떠올리는 건 잠시이다. 집에서 필요한 온갖 가사노동과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감정노동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리고 그게 다른 누가 아닌 '엄마'라는 건 너무나 익숙하고 편한 일이기 때문이다. 각자 너무 바쁘니까, (사실 그렇다. 요즘의 사회는 모두를 점점 더 바쁘게 몰아가고 있다.) 덜 바쁜 엄마가 전담하는 게 효율적인 일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엄마라는 정체성이 엄마를 '다른 일로 바쁘게 못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상한 건 엄마 역시 밖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심지어 아빠가 직장에 다니지 않고 엄마가 직장에 나가는 시기조차도 그렇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더 많이 집안일을 '돕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집의 어디가 어질러져 있는지, 지금 필요한 일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신경 써서 찾아내는 것. 그리고 다른 가족들의 상태를 챙기고 돌보는 것은 여전히 엄마의 몫이고, 이것은 단순히 '돕는'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니다.

'어머님의 크신 사랑',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와 같은 말들은 모성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낸다. 많은 엄마들은 그런 때려와 사랑, 보살핌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엄마의(혹은 여성의) 기쁨이란단, 그건 내가 선택한 거란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 가치들은 분명 고귀하고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토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저 가족들을 보살피는 데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그건 너무나 불안정하고 일방적이어서 언젠가 지칠 수밖에 없는 희생일 뿐이다. 그리고 그 경험이 그토록 행복한 일이라면, 어째서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함께 나누지 않는가?

요즘 들어 부쩍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는 엄마를 본다. 내 친구들도 자기가 대학에 온 뒤로 엄마가 외로워한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중학교 때까진 어려서, 고등학교 때

는 입시라는 핑계로 엄마가 뭐든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하자. 대학에 온 뒤로 나는 빠르게 내가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을 찾아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어서 행복해.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저녁 무렵 지쳐서 돌아와서도 또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설거지와 빨래를 하는 엄마를 보며 이제야 문득 깨닫는다. 내가 '하고픈 일을 마음껏 하고 있어 행복'한 걸 가능하게 했던 건, 내 몸의 가사노동과, 감정노동을 엄마에게 다 떠넘긴 것, 엄마의 일방적인 희생이었다는 것을.

나는 '자신의 욕망을 긍정하는 것'도, '타인을 돌보고 배려하는 것'도 참 기쁘고 소중한 경험이자,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성별에 따라 역할분담이 이루어진다. 일상적인 만남에서도, 연애에서도, 가장 뚜렷하게는 '가정'에서 그렇다. 그러나 '가사노동/감정노동/보살핌노동'이란 것은,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이 눈에 잘 띄지는 않는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것이 무척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지 않으면, 그 일은 소수(주로 엄마)에게 몰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면 그 소수가 점점 더 버거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이를 당연시 하게 된다. 나는 세상의 모든 엄마들도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가족 내의 다른 구성원들도 집에서 자기 몸의 일을 찾아서 하는 기쁨, 서로를 배려하고 보살피는 기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럼 나는? 나는 여전히 빠르게 돌아다닌다. 두 번의 여성주의 세미나를 거치면서 '나 스스로가 얼마나 변화하고 성장했을까'를 살펴보면, 가장 부끄러운 지점은 바로 가정 안에서의 나이다. 나는 아직도 내 몸의 가사노동과 감정노동을 제대로 해내고 있지 못하다. 그렇지만 난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집안일 많이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하고 싶진 않다. 나의 결론은 그것과 매우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것이다. 나는 여기서 엄마에게, 이제부터 조금씩 조금씩... 그 일들을 각자의 몫으로 돌려주시라고, 가정에 필요한 많은 일들을 어느 누군가가 도맡아 하고, 그것을 능력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스스로의 인생을, 그리고 '서로'의 인생을 지지하는 가족이 되자고, 얘기하고 싶다. 물론 그 과정에서 나의 실천들이 함께 이루어져야겠지. ^^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엄마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엄마들의 인생을, 진심을 다해, 지지한다!

✎ 그녀는 다이어트 중

- 끊임없이 얻어맞는 여성의 몸으로 인해 -

by 혜지



우리나라에서 여자는 365일 내내 다이어트 중이다.

우리나라에서 여자가 아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을 때 가장 듣기 두려운 말은 무엇일까? 바로 '살 났네'일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듣기 좋은 말은? 당연히 살이 빠졌다는 소리다. 이렇듯 여자의 외모는 언제나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는다. 오늘 화장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옷을 새로 샀는지 등등... (그것이 칭찬이든 놀림이든 말이다.) 여자는 또 그런 가치평가에 끊임없이 압박을 받으면서 산다. 그 까닭은 오랜 세월 동안 여자의 자기 존중감이 외모에 의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상대적으로 능력을 평가받는 남자에 비해 여자는 아름다운 겉모습에 의해 점수가 매겨져 왔다.

지금과 같이 남성이 우위인 사회에서는 여성도 남성에 의해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남자가 여자를 '여자', 아니면 '전혀 여자로 보이지 않는 남자 같은 사람'으로 양분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여자의 자아정체성에 치명적인 것은 남자의 '넌 여자도 아니다'라는 말이다.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부당한 조건을 내면화하는 여성의 모습은 예치롭다. 내 주위의 많은 친구들은 요즈음 다이어트 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결국은 체념하고 태세에 따른다. '그래도 여자는 남편해야지.'라며 말이다. 이런 식으로 순응해 버리면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 심지어 남자들 중에서도, 입으로는 너무 마른 여자는 매력 없다고 말

하면서도 실제로는 남편한 여자에게 짝을 못 주는 아이가 대부분이다.

물론 기왕이면 예쁜 것이 보기에도 좋지. 하지만 무리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고,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고, 결국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굳게 믿는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를 채우게 되었다고 자축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많은 여자들은 그것도 자기계발의 일종이라고 여전히 항변할지도 모른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

생각을 바꿔도 행동에 옮기기는 또 쉽지 않다.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의 외모지상주의를 명비난하고 있는 나는 과연 남성의 눈에서 자유로운 사람일까? 나 자신이 혐오스러운 만큼 안타깝게도 절대로 그렇지 않다.

많은 여자들이 오늘도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나도 그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는 오늘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 내가 없는 우리 공동체

- 반공동체나 여전죽어 -

by 강대



(나는 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애착이 많은 여학우다. 지금 내가 쓰려는 내용은 바로 내가 그 공동체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다. 이것이 정말 내가 혼자서 불편하게 느껴 온 일일지는 읽는 학우들이 얼마나 공감하느냐에 달려있다. 나는 쓴다. 이것이 진정 나 혼자만 느끼는 불편함일지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말이다.)

한 친구는 그렇게 말했다.

예쁜 친구와 학기 초에 반 활동을 했을 때 선배들이 다른 새내기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조차 그 친구에게 '예쁘다'며 노골적인 호감을 보였을 때 자기는 무척 반에 실망했다고 한다.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새내기였을 때의 일이다. 한 선배 주위로 여러 새내기 여학우들이 앉아있는 사진을 보고 다른 선배가 "천국"이었겠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여제서 그 선배에게 다른 선배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너무 원망스러웠다고 한다.

이렇게 남학우와 여학우의 관계맺음을 연애의 가능성으로만 가능하는 것은 수많은 다른 가능성을 포기하게 만든다. 그것은 '이성 간에 우정은 없다'라는 이야기와 비슷한 맥락이다. 다른 가능성은 꿈꿀 수도 없게 만든다. 대학을 들어와 보다 넓고 진실된 관계를 꿈꾸던 사람들은 1차적으로 맞닥뜨린 반공동체가 이야기하는 관계의 편협함에 실망한다. 특히나 새내기 여학우는 대학에 딱 들어오자마자 남자 선배들로부터 '잠정적인 연애의 대상'으로 저울질된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어떤 순간에 공동체에 대해 실망하는가?

이 글을 읽는 그대가 공동체공간을 찾는다면 그 공간에서 이야기되는 주제들이 한정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몇몇 학우들이 모일 때 으레 나오는 게임(카오스, 위



닝), 축구경기, 혹은 군대를 다녀온 이야기
다녀온 이야기 등등. 물론 이러한 화제 자
체는 문제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공동체
공간 내에서 그러한 화제에 접근하지 못
하는 다른 학우들을 위한 배려는 존재하
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카오스
를 배우고 위닝을 배우고 축구경기의 규
칙과 유명한 선수들의 특징을 꿰고 주위
심긴 군대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되지 않
냐고? 그리고는 한 마디 덧붙여서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라고 말할테지?

그러나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로마에 와서 로마법을 따르라고 애쓰지만, 마르
기 힘든 사람이 있는 법이다. 그런 사람을 위해 로마도 로마법을 고치는 게 진정한
평등이고 진정한 공동체가 아닐까. 적응한 사람들만의 공동체는 그 사람들만의 공동
체일 뿐 우리의 공동체는 아니니 말이다.

반이 위기라고 모두들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반공동체의 위기인가. 반공동체
의 권력의 중심에 있는 몇몇 학우들이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고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오만의 위기가 아닐는지, 위기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다 같이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다.

✎ 감정노동, 학교, 그리고 여성

- '감정노동' 에 대하여 -

by Darkceps



당신은 쇼핑을 자주하는가?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에 자주 가는가? 이제는 일
상이라서 신경 쓰지 않을 테지만 '어서오세요'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최대한 공손하
게 말하는 안내직원들, 주차장입구 앞에 서서 기계처럼 인사를 반복하는 노동자들, 비행
기 승무원은 대부분 여성노동자들이다. 장기화되고 있는 KTX승무원 파업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승무원은 전부 여자였다. 이런 상황을 자연스럽게 일상적이라고 대충
넘어가기 전에 왜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하지 않을까? 왜 흔히 우리가 하위서비스직
이라 인식하는 직종에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감정노동이 뭘때?

고객안내센터, 주차장도우미, 비행기 승무원 등등 직업들은 다 다르지만, 하나의
공동점이 있다. 항상 친절해야하고, 실사 고객이 불쾌한 행동을 하거나 화를 내도 항
상 웃음을 유지하고 언제든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업무다. 어
떻든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노동의
형태를 감정노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감정노동을 정의한다면 감정노동에 속하는 직업군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앞서 언급한 주차장 도우미, 비행기 승무원, 고객센터 직원 등을 포함하여, 간호사,
교사, 보조, 판매원과 같은 노동자들을 대표적인 감정노동자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감정노동의 정의를 폭넓게 적용하면, 서비스 산업노동자들을 대부분 감정노동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굳이 서비스직이 아니더라도 감정노동을 생각해 볼 수 있
다. 직장에서 상사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하여 아부를 한다든지 화를 참는 다는지 식

1) 1983년 미국 UC 버클리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인 알리 러셀 홀츠하르트(Arlie Russell Hochschild)는
직업상 원래 감정을 숨긴 채 다른 얼굴 표정과 몸짓을 해야 하는 상황을 감정 노동(Emotional Labor)
이란 말로 표현하였다. 즉, 감정 노동이란 배우가 연기를 하듯, 타인의 감정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감
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의 에피소드들을 심심치 않게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감정을 숨김으로서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노동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감정 노동의 핵심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특정한 행동을 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 음식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나, 홍보행사 도우미 아르바이트 등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해할 것이다. 힘들고 짜증나고 심지어 고객이 화를 내도 속으로만 부글부글 끓어야하는 상황을, 이런 스트레스가 지속될 경우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공황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작년 모 시사프로그램에서 감정노동관련 영상이 방영되었는데 사례로 나온 대부분 노동자들이 심각한 정신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감정노동의 대표적 직종에 여성들이 집중배치 되어있는가. 서두에서 제기했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흔히 여성성을 논하면서 드는 항목이 '친절함', '상냥한 미소', '부드러움' 섬세한 마음씀씀이 등이다. 따라서 여성이라면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것에 익숙함으로 감정노동에 적합할 것이라는 합의를 생기고 실제로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²⁾ 그러나 이러한 '친절함'이나 '미소' 등은 노동으로서 제대로 가치 평가되고 있지는 않기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고 강도 높은 노동을 강요받는다.

그러면 우리 공간에서의 감정노동은?

감정노동이라고 해서 '노동'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대학에서 감정노동을 언급하는 것에 의아함을 느낄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시로 든 직장에서 감정노동처럼 우리도 우리 공간 안에서 끊임없이 감정노동을 하고 있다. 싫어하는 사람과 마주쳐도 실은 티를 내지 않아야 하는 경험이 한번쯤은 있었을 것이다. 예시가 너무 모호

한가. 그렇다면 술자리의 상황 특히 오티때나 신수 배를 생각해보자. 모두가 모여서 즐겁게 술을 마신다. 술자리가 무르익고 사람들은 게임을 하기 시작한다. 게임에 져을 경우 벌칙은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는데 가끔 러브 샷이나, 심하게는 여성을 낚인 상태에서 남성이 위에 올라가 팔굽혀펴기를 하는 등의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벌칙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불쾌함을 느끼지만, 정작 분위기 때문에 즐거운 척을 하는 감정노동을 한다. 불쾌함이라도 호소하려고 하지만, 그러한 통로조차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런 불쾌함은 친구에게 "짜증나는 일"로 지나가 버린다.

[감정 노동이 심한 조직의 몰락은 시간문제]

감정 노동이 심해지게 되면, 구성원들은 상리적으로 탈진하게 되고, 조직성격도 하락하게 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선 구성원들은 업무 의욕이나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잃게 되기 쉽습니다. 특히 우수 인재들은 쓸데 없는 감정에 체력을 소진하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조직을 떠나게 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둘째로 동료나 상사와의 인간적인 관계에서 신뢰를 구축하기 어렵게 됩니다. 솔직한 감정 표현이 자신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면, 구성원들은 자신의 감정을 위장하여 단지 표면적인 친절감만을 형성하게 되고, 어느 누구의 언행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끝으로 구성원들은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상위 직급으로의 정보 흐름도 차단됩니다. 리더들은 듣기 좋은 정보만 획득하게 되고, 정확한 정보 파악에 큰 허점을 갖습니다.

위 예문은 비즈니스를 분석한 것이지만, 대학도 마찬가지다. 성차별적인 상황이 군데군데 벌어지지만, 문제제기대신에 감정노동으로 상황을 무마해야하는 집단은 강한 결속력을 갖지 못하거나 소수만의 공간이 될 수 있다. '왜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갈까(특히 여성들이)'라는 한탄만이 난무하는 단위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제는..

여성주의라는 사고 속에서 처음 문제제기를 했지만, 우리 공간에서의 감정노동의 문제는 여성주의를 뛰어넘는 하나의 보편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집단의 진정한 결속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속한 자치단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게 어떨까. 조직의 단합이란 명목으로 조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봉쇄한 채 개개인의 감정노동만 요구하는 단위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자.

2)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친절하거나 상냥함이 남성에 비해 두드러진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 일하는 그녀들의 이름, 비정규직

- 여성과 비정규직 노동 -

by 박복한 황소



계약직- KTX 여승무원이 되고 나서
김명환

KTX 여승무원이 되고 나서 / 나는 커피를 빙지 않는다.
컵라면도 통조림도 먹지 않는다 / 봉지 커피도 티백 보리차도
드림크도 탄산음료도 마시지 않는다 / 물티슈도 내프킨도 종이컵도
나무젓가락도 볼펜도 쓰지 않는다

눈이 화할게 내리던 / 크리스마스 이브
아스테이자에 물을 팔러
빨간 리본을 단
장미 한 송이 받아들고

나는 울었다 / 내가 불쌍해서
한면 쓰고 버려지는 것들이 / 가여워서
눈물이 났다

제복을 입고 스카프를 두르면
어느 때에도의 천진난만한 웃음보다
따뜻하고 화사하게 웃어야 했지만
웃으면 웃을수록 자꾸자꾸 눈물이 났다

사는 것이 /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구차하고 비굴하고
가슴이 미어질 줄은 몰랐다

KTX 여승무원이 되고나서야 나는
이 세상이
한면 쓰고 버려지는 것들의
눈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흐르고 넘쳐
자꾸자꾸 밀려오는
파도란 것을 알았다



작년 초부터 한국철도공사의 비정규직 대량해고에 맞서 싸우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의 심정이 담긴 시이다. 이 시를 처음 읽고 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다. 자신들의 일자리를 자랄스럽게 여기며 열심히 일했던 그녀들에게 어느 날 '비정규직'이라는 굴레가 씌워졌고,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 싸웠던 그녀들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라는 사형 선고였다. 대체 왜 그녀들의 삶이 그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나는 알게 되었다. 비정규직으로서 일회용품과 같은 노동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이 비단 KTX 여승무원들 뿐만이 아니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여성과 비정규직은 배려야 댈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KTX 여승무원 노동자, 광주시청 청소용역 여성노동자, 기물전자 여성노동자, 이랜드 여성노동자, 그리고 이름을 다 댈 수도 없이 많은 사업장에서 수많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빼앗긴 소중한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투쟁하며 하루를 보낸다. 왜 그리도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는 여성이 많은 것일까? 왜 전체 비정규직의 70%씩이나 되는 비율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을까? 물론, '여성 비정규직'만이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 보아도 여성과 남성의 노동의 현실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전체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성별화되어 작용하며 여성을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으로 내몰면서 전체의 70%나 차지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를 놓치게 된다.

나는 여성 비정규직 문제를 생각하면서 자주 우리 엄마를 떠올려본다. 우리 엄마는 가정주부인데, 엄마가 만약 지금부터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면, 그녀는 아마 심중판구 이랜드 캐서 노동자들과 같은 단순노동에 종사하게 될 것이고,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우리 엄마는 결혼 전에는 유능한 패션계 여성을 꿈꿨었지만, 결혼을 하면서 가정주부가 되는 것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엄마의 그 선택은 '자유로운' 선택이었을까? 엄마가 직업을 가지려면 우선 바깥일과 가사노동을 모두 해내는 소위 '슈퍼 엄마'가 되어야 하는 부담에 직면했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 '슈퍼 엄마'가 되는 고생을 해가며 직장에서 일을 해 봤자, 엄마는 아빠보다 훨씬 월급도 적을 것이고, 승진도 느릴 것이고, 여자라고 커피 심부름만 할 수도 있고, 어쩌면 나를 낳으면서는 직장을 그만둬야 할 수도 있다. 엄마가 온갖 차별을 뚫으면서 몸부림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차라리 집에서 있으면서 아빠가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내조'를 하고, 돈을 버는 것은 아빠가 맡는 것이 훨씬 더 '가정의 화목'과 '경제적 안정'을

빠른 시간 내에 이루는 데에 유리했을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우리 엄마가 직업을 포기했다면, 이것은 결코 엄마가 혼자 결정한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다. 나는, 우리 엄마가 일하면서 엄마의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박탈' 당했다고 생각한다.

가족의 생계비는 '가족임금'을 버는 남성의 '임금'이면 충분하다는 이데올로기는('가족임금'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상위 몇 퍼센트의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실현된 적 없으면서 이데올로기로만 존재해왔다)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가사분담자'의 모델을 설정하여 우리 엄마와 같은 수많은 여성들을 가족 내에 가둬왔다. 하지만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시금 여성은 일터로 내몰려야 했다. '여성이 가정에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밖에서 일도 하는 게 더 평등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기엔 노동의 세계에서 그녀들에게 허용된 권리들은 너무나 초라했다. 이렇게 가족은 여성들에게, '여성의 노동이 남성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게 하는 이유'를 제공해왔다. 그리하여 여성이 사회에서 일을 할 때에는 저임금에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심지어 혼자 사는 여성을 비롯한 여성 가정의 현실 또한 고려된 적 없다.

남한의 신자유주의화를 가속화 시켰던 IMF 당시에 직장에서 가장 먼저 해고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여성이었다. 그리고 여성들은 다시금 '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일자리'에 고용되었다. 기업은 점점 더 노동력을 유연화 시킬 필요가 있었다. 즉, 노동력이 필요할 때에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적절하게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것이 기업에게는 유리했다. 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이었다. 그런 기업에게 '비정규직'은 달콤한 유혹이었다. 기업은 그들이 '가장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자리'에, '가장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노동력'을 배치시키고, 유연하게 사용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쥐어짜고 싶어 했다. 기존에 '덜 중요한 노동력'으로 생각되어왔던 여성의 노동은 이 자리에 안성맞춤이었다.

이런 과정으로 철저히 '여성의 노동'으로 존재하게 된 노동들은 대부분 그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이랜드 노동자들이 일했



던 캐셔와 같은 '단순 육체노동'이나, 경북대 간병인 노동자 분들이 맡았던 '재생산 노동' 등이다. 한 달에 백만원도 안 되는, 소위 말하는 '반환값'으로 평가되고 있는 그녀들의 노동이지만, 정말로 그녀들의 노동이 하찮은 것인지 아닌지는 캐셔 노동자들이 일을 멈췄을 때 홍예버와 뉴코아 매장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면 답이 나온다. 그녀들은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들은 매장을 멈출 수 있었다. 여성이 멈추자, 세상이 멈췄다.

이렇게 가족과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로 인한 여성들의 비정규직화, 그리고 성별화된 노동과 그 노동의 저평가의 상황 속에서도 여성들은 계속 일하고 있다. 이제는 비정규직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 엄마를 떠올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떠올려 보려 한다. 이 사회에서 일하면서 살아가게 될 여성으로서, '일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삶'을 살기 위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비정규직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내가 좋아하는 반 활동이나 사람들 만나는 것은 좀 줄이고, 그 시간에 열심히 토익 공부할 하거나 유학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한 광주시청 여성노동자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난다.

"주위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시청이랑 싸울 시간에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그 일자리 버리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전 대답했어요, 여기 버리고 다른 데 가 봤자, 분명히 더 나쁜 일자리뿐일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만두면 나 다음에 여기서 일하게 될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 분명히 나처럼 잘려도 아무 불평불만 못하게 될 텐데, 나는 그렇게 되게 둘 순 없어요."

나는 그녀가 세상에서 치켜세우는 그 어떤 성공한 여성보다도 훌륭한 여성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그나마 가질 수 있었던 많은 것을 버려가면서 '뱃기지 말아야 할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온몸을 던진 그녀. 그녀가 물려서면 다른 누군가에게 또 고스란히 넘겨질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그녀. 그녀를 보면서 생각한 것은, 내가 지금 할 일은 제한된 기회에서 다른 여성들을 짓밟고 바늘구멍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여성들과 함께, 여성이堂堂하게 일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싸움의 한 걸음 한 걸음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분명 나의 미래와도 관계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어긋나지 않기 위하여

- 여성주의의 군대 문제 -

hy 동동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거두절미하고 말하자면 나는 여성주의에 관심이 많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남성으로서, 여성주의에 대해 발언한다는 것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기에, 감히 '여성주의자이다' 라거나 '여성주의 운동을 한다' 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어쨌거나 나는 관심이 많다.

하지만 내 주변에는 여성주의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고, (현실적으로 사람들에게 여성주의가 '생활'의 문제가 아닌 어떤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따라서 나는 그들에게 여성주의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리고는 종종 벽에 부딪힌다. 바로 군대 이야기 때문에.

군대를 다녀온 친구는 마침내 이렇게 말한다.

"그럼 군대는? 어쨌든 여자들은 군대 안가잖아. 내가 군대에 가서 허비한 시간들은 누가 보상해 주는데? 그럼 이걸로 충분한 거 아니냐?"

사실, 군대와 여성주의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잠시 할 말을 잇는다. 내가 군대를 다녀온 예비역이기 때문에 분명 공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징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전혀 공식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분명 군대는, 특히나 우리나라의 군대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 가혹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어떨까.

나는 취직한 친구들로부터 깜짝 놀랄 만 한 이야기를 들곤 한다. (어쩌면 그리 놀랄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회사 내에서 직속 선배와 후배를 '사수'와 '부사수'로 부른다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사수, 부사수는 군대용어로, 총을 쏘 때 쏘는 사람과 그를 보조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용어가 사회에서 그대로 '관용어'로 쓰인다는 것 자체가 한국사회의 병영 국가적 성격을 명징하게 드러내는 예가 아닐까. 이렇게 군사문화가 디폴트(Default)값으로 내재되어있는 사회에서, 군대를 다녀온 남

성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훨씬 쉽게 조직 질서에 적응하고, 편입된다는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 아닐런지.

종종 문제가 되곤 하는 "군대 다녀와 본 사람은 알겠지만" 하는 식의 언술을 봐도 그렇다. 요즘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졌다고는 하나, CEO급 여성 임원 수의 비율이 OECD국가중 최하위라는 통계에서도 보듯 아직도 한국 사회의 이른바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남성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저런 식의 발언으로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여성들을 암묵적으로-명시적으로 배제시키며 군대를 다녀온 자들끼리의 카르텔을 공고히 한다.



이러한 맞물림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어떤 '보상'으로 여겨지지 않고, 군 문제는 쉽게 감정싸움의 시발점이 되어버리곤 한다. (인터넷에서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성대결'을 보라) 바로 이 지점을 봐야 하는 것이 군 문제를 풀어나가는 실마리가 아닐런지.

나는 늘 현실과 달는 곳에서 소통하고자 하고, 그래서 세미나를 통해 배운 것들을 또 더 많은 이들과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런 나에게 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자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여성주의가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이야기임을 말하기 위해서 말이다.

☞ <천하장사 마돈나>에 대한 짧은 감상

by 국유(copylate)



천하장사 마돈나라는 영화가 상당히 인기를 끌었다. 나도 혹해서 (사실 동성애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코믹하다길래) 해적판으로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다. 자칫 심각하게 비칠 수도 있는 동성애 문제를 재미있게 풀어낸 것 같아서 아주 대단한 작품이란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알게 된 것이지만 <태종 드 히미코>등의 동성애 영화가 꽤나 많이 나와 있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사실인 것 같다.

페미니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엘리스에서 왜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하냐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물어볼지도 모르겠으나, 이번 세미나에서 큰 주제 중 하나였던 것도 동성애였고 그만큼 동성애에 관해서도 사람들과 많은 토론을 했었다. 물론 알다시피, 여성도 소수자라는 것. 동성애자도 소수자라는 것에서 페미니즘과 동성애는 서로 연결된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여성과 동성애 모두 섹슈얼리티(성욕이라는 뜻과 성적 특성이라는 뜻이 결합된 용어)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래서인지 나는 천하장사 마돈나를 보면서 동구의 어머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놀이공원에서 업에 종질할 정도의 돈을 받으면서 근근히 일하는 어머니(여성)의 모습과 나중에 자라서 온갖 차별을 다 당하면서 살 동구(물론 결말은 그렇지 않았지만)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 것 같아서 많이 슬펐다.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계도 모두가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이 살 수는 없는 걸까? 우리 모두 동성애자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 학내에 페미니즘이나 동성애에 대한 반감이 많은 것 같은데 조금만 공부하고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보면, 그리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거부감 갖지 말고 조금 더 관용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

* 먼 뒷장인 이곳을 펼쳐보는 당신은 누구인가요? 설마 이 책을 찬찬히 다 읽은 사람인가요? 글은 어땠나요? 공감 가는 것들도 있고, 한편 다른 생각도 들었을 텐데, 당신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이 조그마한 책을 통해서 잠깐이나마 우리 엘리스와 함께 대화한 당신도 언젠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어요^^ 힘들고 지치는 일상 속에서 또 다른 엘리스인 당신을 만날 그 두근거리는 날을 기대하며. - 현석

* 세미나에서 다양한 글을 읽으면서 여성주의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된 나처럼, 이 책자를 읽은 사람도 여성주의를 다르게 보게 되었을까? :)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 쫓겨 이 사회의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엘리스에서는 솔직한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좋다. 단순히 수다만 떨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각성을 통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깨우치고 세상을 바꿔야 하는데! >(< 그리고 같이 세미나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앞으로 인사하고 지내면 좋겠습니다.:) - 혜지

* 답답해. 숨 쉬고 싶다. 나와 세상 사이에 두꺼운 묵도리가 끼인 것 같아. 눈썹이 사춘기라도 겪고 있는 건가. 이야기 하고 싶어. 나와 너, 너와 나, 나와 우리, 우리와 그들, 모두를. 누구도 혼자가 아니야. 같이 놀자. 같이 웃자. 같이 아파하자. - 엘로디

* 저는 뭐니 뭐니 해도 많이 얘기할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어요. 다른 곳이라면 너무나 큰 반발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듯한 시선에 스스로도 말 꺼낼 생각이 쏙 들어가는데, 그런 긴장 없이 부담 없이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가 좋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엘리스에 비판/다른 의견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책자가 나온다고 하니 신기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그렇네요. 이 책자로 다른 사람들도 엘리스의 분위기, 엘리스의 생각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 L

* 이번 세미나도 새로 알게 된 친구들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예의 하

나를 배운 느낌입니다. 배운 예의는 열심히 익혀서 생활 속에서 우려내야겠죠. (웃음)
그래서 이번엔 제가 생각하기에 예의스럽지 않은 이야기를 글로 옮겨보았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많고 무엇보다 글에 감동이 쏙 빠져버린 게 아쉽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제 삶에서 마저 채워보겠습니다. - 원동

* 여성주의 세미나는 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 이번 방학 때 했던 여성주의 세미나도 마찬가지! 서로의 에너지를 뽐내 채워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반도 다르고 단대도 다른 사람들이 만났는데도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었고 이제는 제법 친해진 것 같아서 부듯부듯 < 특히 톡톡 튀는 새내기들을 만나서 좋았어요. 소책자에 실는 나의 글은 부끄럽지만 그동안 가장 많이 고민했던 주제 중 하나에 대해서 쓴 거라서, 쓰는 동안 괴로우면서도 좋았어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여성주의를 고민하고 내 삶에서 실천하고 싶어요! - 행복한 황소 -

* 여성주의 세미나 너무 알차요. 평소에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란 말도 있잖아요! 여성주의에 대해서 모르는 것 보다는 아는 것이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엘리스 너무 알차고 생각이 비슷한 많은 친구, 선배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좋았어요! - 공유

* 책임감 없이 소책자에 실을 글을 쓰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후기에서나마 소책자에 실을 글로 쓰고 싶었던 것을 짧게 써 볼까 합니다. 페미니즘에서의 여러 가지 쟁점을 접할 때마다 남성의 공감을 이끌어낼 만한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성 가운데 페미니즘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페미니즘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하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석원

* 엘리스 안녕? 참 반가워. 세미나를 하면서, 같이 밥먹고, 술먹고, 웃고 떠들면서... 그리고 이책에 내는 글을 쓰면서... 너를 만나서 난 많이 행복했어. 이 책은 너와의 추억이라고 생각할게. 나도 이제 엘리스야. ^^ 우리 화이팅!! - GoldPen

*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아가면서도 편안함을 느끼는 건,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다. - 준용

* 글을 하나 쓰고 싶었어요. 여성주의자로 살아갈 이들에게 쓸 이야기를.

그대들의 분노를 단지 분노로만 표출하지 말고, 여성주의에서 받은 힘을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길. 선불리 다른 이들의 삶의 방식을 부정하지 말길. 그들 스스로가 혼란을 느낄 때 옆에서 다른 방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이죠.

왜 이 말을 쓰기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여성주의를 내 삶을 재구성하는 큰 틀로 삼으면서 놓치지 않고자 했던 것들인데, 그게 생각보다 가혹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저는 글을 쓸 수가 없더군요.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보듬고 지지해야 할까. 저는 요새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언젠가 내 안의 어떤 것들을 제대로 보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갖게 되었을 때, 피가 바싹바싹 마르고 온 신경이 곤두서더라도 스스로의 글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그때,가 쉽게 올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때에도 여러분이 여전히 이곳에 있길 바래요. 소중한 사람들. 파이팅. - 상은

* 여성주의를 알고부터는 이전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느끼지 못하던 것들이 느껴져서 자주 눈물이 났어요. 작은 것에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어렵고 혼란스러운 건 사실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는 힘,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막 솟아났달까요.

사람들과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 늘 막막했었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여러 가지 기획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 안에 다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발행도 꽤나 늦어졌지만] 이걸로 시작합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 - 유미

* 가끔은 '몰랐으면 어쩔 뻔 했어'를 속으로 백만 번 외쳐볼 때가 있다. 나를 살아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페미니즘. 살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갈등과 진통 속에서도 천천히, 달팽이처럼 나아가는 거니까. 나는 그렇게 달팽이처럼, 너와 함께. - 지현